

전남도 유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철신 사장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산하기관장 인선인데다 기초단체장 출신부터 내부 승진, 중앙부대 경영 전문가, 전남도 고위 공직자 출신 등 하마평도 무성해 전남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도 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과 역량 등 차기 사장 선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제8대 사장을 채용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임원추천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전남도에서 추천한 2인, 도의회 추천 3인, 공사가 사회에서 추천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남도와 의회 모두 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로, 오는 15일을 전후해 임추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오는 9월 9일까지 임기인 김철신 사장의 퇴임 시기에 맞춰 사장 후보

‘전직 단체장 vs 내부승진 vs 경영전문 vs 도 출신’ 전남개발공사 8대 사장 인선 촉각

자 자격 기준 등을 논의하고,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도지사가 최종 사장 후보를 낙점한 뒤 도의회 인사정명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지난 2018년 7대 사장에 취임한 김철신 사장은 첫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해 9월 1년 임기로 연임했다. 재연임 여부 등 아직 거취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지만, 자리를 비울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김 사장은 재임 기간 조직 슬림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재무건전성 확보, 개발·분양전략 고도화 등 자구노력에 주력해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개발공사의 경영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또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공동체 복원 등

민선 8기 첫 산하기관장 선임 미래먹거리 발굴 등 역할 막중 임추위 구성...김 지사 선택 관심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 개발공사의 브랜드가치를 크게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대 사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천타천 후보군들도 불망에 오르고 있다.

인사권자인 김영록 지사가 경영 전문가 등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전망은 우선 나온다. 개발공사가 신안 해

상광역시 1단계 사업을 비롯, 영광 안마도 해상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참여, 태양광 분야 ‘1호 도민발전소’ 상업운전 등 도정 핵심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 영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도내 22개 시·군별 현안과 핵심가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여수 죽림1지구, 담양 보춘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경영 능력에 무게추가 기울어 분부이다.

경영 능력에 정무 기능을 강화할 경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한 재선 군수 출신의 A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재선 단체장 출신으로 소위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향후 개발공사의 지향점 등을 감안할 때 정치 이력과 경륜 등 정관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록 지사와의 관계가 긴밀한 점도 A씨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개발공사 내 내부 승진으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난 6월 말 퇴직한 윤주식 전 본부장이 첫 손에 꼽힌다. 2004년 개발공사 창립 멤버로 입사한 윤 전 본부장은 18년 동안 근무하며 공사 내·외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경영지원과 평가, 분양·보상 등 공사 내 전 분야를 섭렵했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부적 감각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설립 20주년을 앞둔 개발공사의 위상 등을 감안, 내부 인사 발탁을 고려했을 때 조용한 카리스마를 갖춘 윤 전 본부장이 적임자라로 분류된다.

이밖에 전남도 공무원직자 출신으로는 전 건설교통국장 B씨, 전 보건복지국장 C씨, 전 도 민소통실장 D씨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정무 라인에서는 김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E씨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근산 기자



선서하는 보궐선거 당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6·1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의회 원구성 민주당 ‘독식’

의장단 등 당내 경선 대로 진보당 도의장 후보 등록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광주시의회와 12대 전남도의회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전체 23명)은 4일 총회를 열고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후보를 결정했다.

부의장에는 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무창 의원으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강수훈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임미란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조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김나운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은 신수정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이들 후보가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전남도의회 역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체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한 결과 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4선 출신의 서동욱 의원과 재선인 진보당 오미화 의원이 등록했다. 1·2부 의장 후보에는 3선 김태균 의원과 재선 경선 의원이 각각 단독 지원해 사실상 확정됐다.

상임위원장 후보도 민주당 경선 결과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등록했다.

운영위원장 차영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이철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동현 의원, 농수산위원장 신의준 의원, 교육위원장 조옥현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9대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 있고, 12대 도의회는 전체 61명 중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시·도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파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겠다고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나온 이 같은 의장 선출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민주 광산구의회 의장 후보 ‘제비뽑기’ 촌극

갑·을 지역위 합의 못 이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를 제비뽑기로 선출했다.

지역위원회 간 양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촌극이다.

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비뽑기를 거쳐 재선인 김태안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

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갑·을 지역위원회가 각각 내세운 예비후보 간 합의 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비뽑기 방식을 결정했다.

각 지역위원회 소속 광산구의원은 7명씩인데 동수를 이뤄 투표로써 단일 후보를 선출하지도 못했다. 광산구의회 정원은 18명이다.

전반기 의장직을 놓고 민주당 후보는 4선인 진보당 국강현 의원과 경쟁한다.

의장 등 전반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는 5일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이날 ‘제9대 광산구의회 구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민주당 안에서도 협치, 타협, 선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 방식이 참으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윤영봉 기자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HI-NURI 하이랜드(주)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HI-NURI (주)나로디엠씨 HI-NURI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1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